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

# 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조치 부실 지적

### “특위 12가지 권고안 시정 요구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구성한 일 빼고 한 일이 없다”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부실한 처리 결과를 질타했다. 이완구 의원(서신동)(사진)은 7일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12가지 권고안을 시정토록 요구했는데도 전주시의 행정적 조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구성한 일 빼고는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위에서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집행부서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내용 또한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한 준수 문제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보고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학교 청소노동자 임금체불 해결하라” 7일 전북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내에서 불거진 청소노동자 부당인사 및 임금체불 문제를 대학이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청소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구역을 부당하게 배치하고 4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역시 처음 특위에서 반입수수료 산정문제를 지적했을 때부터 반입수수료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비했어야 하지만 추진계획 어디에도 용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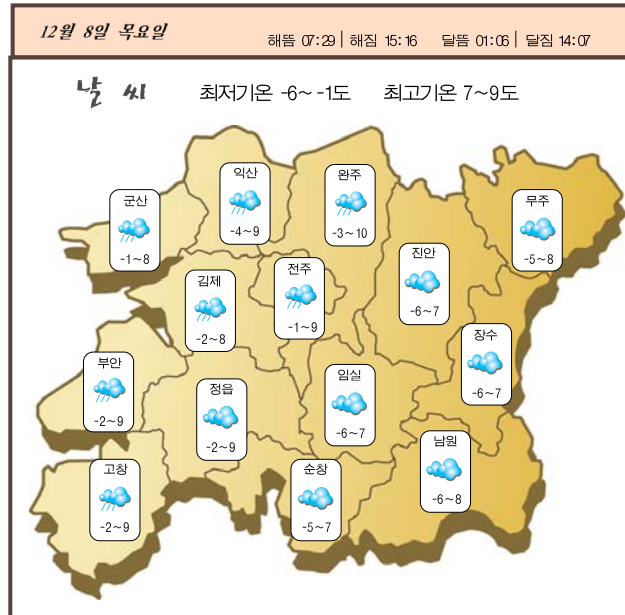
또한 이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미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자원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시정을 명한 사항으로, 특위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즉시 조처개정에 나설 수 있는데도

9월 회기, 10월 회기를 지나도 조처안이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는 특위에서 지적한 12가지 권고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에 자원위생과 내에 폐기물처리개선TF팀”을 신설하여 전담요원(2명)을 배치했고, TF팀은 그간 법령을 초월한 주민협약서에 대해 고문 변호사와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 검토를 마치고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승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폐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입수수료 산정은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성상별 처리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와 협약에 의해 고정금액으로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교육청,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 17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전북교육청이 오는 17일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열고, 전북권 대학과 교대·지방거점국립대학의 정시분석과

지원전략을 설명한다. 또 수도권 대학의 정시 주요사항 분석과 지원전략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날 2017학년도 대입 수능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면접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해은기자

## 전북대병원 재난응급의료지원팀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우수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병재)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충북 충주소재 건설경영연구소에서 열린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의료 대처능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의 사회적 관심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대응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최선의 재난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 15개팀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다수사상자사고 현장대응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 형태로 진행됐다.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윤재철 교수를 비롯한 병원 직원 9명을 주축으로 전북도청 2명, 원광대병원 1명 등 총 12명으로 전북대표팀을 구

성해 참가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응급의료 대처능력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표팀은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재난골든벨 행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대회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전파 후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의 신속성 ▲현장 도착 후 적절한 지휘체계 마련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 ▲인근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분산이 승의 완결성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평가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역량을 키워 전북지역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교육청, 청렴도 평가 전국 2위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평가 결과 7.91점 지난해 비해 0.32점 상승

전북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7.91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5개 등급에서 2등급(우수) 순위이며 5년 연속 우수로 평가되었다.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7.91점, 외부청렴도 8.07점, 내부청렴도 8.16점, 정책고객평가 6.88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여 2012년 이후 5년 연속 2등급 우수로 평가됐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청정 전북교육

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정책을 강화하고 실천해 왔다. 특히 급식, 운동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교직원 뿐 아니라 방과후 강사, 급식납품업체, 공사업체 등 관련 민원인들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 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5위에서 2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앞으로도 청정 전북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정해은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